

# 익산, 2021년 신규사업 28개 발굴 대응

## 시책사업·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익산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책사업과 국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익산시는 2020년 시책사업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정현을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내년도 시책사업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분석하고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시책사업과 그 다음연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보고회를 별도로 실시해 오던 것을 올해는 함께 개최해 사업 추진전략과 예산 확보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시책사업을 다음연도 국가예산과 연계해 사업 준비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발굴방향을 민선7기 공약사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혁신성장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사업,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정하고 사업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2020년 시책사업은 총 43개 사업으로 시장 방향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한다.

발굴된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금마관광지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20 익산산촌체험축제 △명품가로솔길 조성사업 △북부건강증진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등이다.

이어 2021년 발굴된 신규사업은 28건, 총사업비 4,520억원 규모로 생활안전 분야, 산업단지 기반조성 분야, 역사문화관광 개발분야, 4차산업 농업기술선진화 및 생활SOC 분야 등이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주요 국가예산사업으로는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기반 고기능성 섬유산업 육성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서동생거터 역사공원조성 △미세먼지 차단단순 조성사업 △익산시 푸드종합센터 건립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등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명산시장의 '빛고운 야시장'이 재개장했다.

## 군산명산시장, 빛고운 야시장 재개장

11월 30일까지 경품추첨 등 프로그램 다양

군산 명산시장의 '빛고운 야시장'이 재개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군산명산시장 빛고운 야시장은 '달빛파크'라는 테마로 새롭게 꾸며져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6시 ~ 오후10시, 총 10회) 운영된다.

이번 개장식은 군산시민과 군산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야시장을 널리 홍보하고 명산시장을 야간관광 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축하공연(걸그룹 핫플레이스(배드키즈), 춤바댄스, 밸리댄스),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명산시장 빛고운 야시장은 매주 야시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내

가 최고야'라는 이벤트를 진행해 제기차기, 딱지치기, 알까기 등 매월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 입상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무료체험 행사(도자기 만들기, 실 공예, 꽃다발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종이향수 만들기 등(매주 일부 변경)), 추억의 게임(옛 뽑기, 미꾸라지 툯, 빙고 게임, 미니 오락광 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축하공연(걸그룹 핫플레이스(배드키즈), 춤바댄스, 밸리댄스),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여 운영기간 동안 야시장에 오는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시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주간 행사

14일부터 19일까지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2019 군산시 평생학습주간 행사가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구 시청 광장 및 시립도서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과 함께한다.

시가 주최하고 시민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인식 확산과 평생학습현장 경험과 결과물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2019 군산시 평생학습주간 행사가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열린다.

'시민이 함께하는 군산 평생학습의 바다로'란 주제로 열리는 2019 군산시 평생학습주간행사는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거리공연, 홍보·전시·체험부스 운영,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경진대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토론회, 동네문화카페 성과발표회 및 평생학습인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내 70여개의 평생교육 기관(단체)·동아리 등이 40여개의 부스에서 70여개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14일, 15일, 17일 구 시청광장에서 개최되는 동네문화카페 야간

거리공연은 그동안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한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인 동네문화카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행사다. 어린이 합창과 함께하는 우쿨렐레, 통기타 연주, 가곡, 국악공연 등 총 28개팀의 다양한 공연이 시민과 함께한다.

16일 시립도서관 새만금홀에서는 태원준 여행작가의 '여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란 주제로 열린

시민강좌인 새만금아카데미가, 17일에는 장애인체육관 다목적홀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의 역할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폐품을 재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3D펜·도자기 공예 등 70여개의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캘리그래피·홈패션·문해학습 및 포크아트 등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군산시의회,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지난 11일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협력업체의 도산은 물론 대량실업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전북인력개발원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전북인력개발원은 청년 실업난과 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으로 매년 350명 이상 23년간 8700여명의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당사 수익성만 토대로 휴원을 결정하는 것은 군산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군산시를 고용·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우리시 또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는 훈련 대상 다변화 및 신산업에너지 및 미래산업 분야로 훈련과정을 전환하여 미래 수요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국회, 전북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 송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무질서한 개발 방지

군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06.30. 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등 개정 조령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두차례(2019년 8월 1일 및 10월 1일) 공포·시행됐다. 또한, 의원발의로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로 개정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익산 만들것"

정현을 익산시장, '시민열린광장' 성공 개최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열린광장'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열린광장은 시민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 및 주요 민원을 함께 듣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정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201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개최돼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시장은 이날 30여명의 시민들과

미주야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논의된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직전 단계에 이르러 시민열린광장 개최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그대로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